



KOREA WINE CHALLENGE



질리 olcano 화산



▶ Domaine Mure

Domaine Mure 와이너리는 1650년 Michel Muré에 의해 알자스 남부 지역에 설립되었으며 이후 그의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1935년 Alfred Muré가 끌로 생 랑들랑에 포도밭을 구입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포도밭에서 질 좋은 포도를 수확하고 있다. 이 중에는 두 개의 그랑크뤼 밭도 포함된다. Domaine Mure 와인은 은은하고 고운 과일 향이 나며 수명이 길다는 특징이 있다. 1999년에 들어서는 사유지 중 28ha 규모의 포도밭에서 유기농 경작을 시작하여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연구한다. 수입사 비노파라다이스

수상 와인리스트

Bronze Domaine Mure Riesling Calcaires Jaunes



▶ Grand C

Grand C 와이너리엔 두 명의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 바로 Axel Wulfken과 Jacques Cattin. Axel Wulfken은 수년간 샴페인 모엣상동에서 매니저를 맡았다. 그는 전문적인 경험과 와인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만의 독특한 와인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Voegtlinschhoffen 마을로 향하게 된다. 그곳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 메이커 중 한 명이자 크레망으로 많은 상을 거머쥔 Jacques Cattin을 만났고 2009년, 마침내 첫 크레망을 선보였다. 와이너리의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엄격하게 제한된 조건과 규칙에 따라 양질의 와인을 생산해 내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수입사 비노파라다이스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Grand C Edel

BORDEAUX 보르도

프랑스 남서부에 위치한 보르도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산지라 해도 이견이 없을 곳이다. 워낙 이름난 곳이어서 와인 초보자들도 익히 알고 있는 산지 중 하나이다. 보르도 와인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보르도의 오래된 역사를 방증하듯 전 세계 많은 와인 생산자들이 보르도의 와인 스타일을 벤치마킹했다. 와이너리를 칭하는 '샤또'의 개념이나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등을 블렌딩하는 일명 보르도 스타일이 세계적으로 벤치마킹된 사례들만 봐도 그렇다. 보르도 지방의 행정구역은 아키텐 지방에 속한다.

이 방대한 지방에는 세 개의 큰 강(가론느, 도르도뉴, 지롱드)이 흐르는데, 이 강들을 중심으로 보르도는 크게 좌안과 우안으로 나뉜다. 좌안은 그 유명한 '1855년 등급'의 배경지다. 메독, 오메독, 그라브, 삐삭 레오냥, 소테른이 이에 속한다. 그중 오메독에는 생페스테프, 뵘이약, 생쥘리앙, 마고 등 유명한 마을들이 자리하고 있다. 반면 우안에는 생페밀리옹, 뿔므롤, 프론삭 등이 있다. 보르도에서 생산되는 와인은 대부분 레드 와인으로, 여러 품종을 블렌딩한다. 허용되는 품종은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까베르네 프랑, 말백, 뵘피 베르도 등 다섯 가지가 있다. 좌안에서는 까베르네 소비뇽이 우안에서는 메를로가 메인이다.



보르도 포도밭

Wine Review 47



상파뉴

CHAMPAGNE 상파뉴

상파뉴는 프랑스 와인 생산지 중 가장 북쪽에 자리한 산지다. 스파클링 와인 중 가장 유명하고 최고의 품질로 평가되는 샴페인이 이곳에서 난다. 샴페인은 프랑스어인 상파뉴를 영어로 나타낸 단어다. 일반적으로 상파뉴 지역에서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스파클링 와인을 이르는 용어로 통용된다. 와인 생산지는 크게 다섯 군데로 나뉜다. 오브(Aube), 꼬뜨 데 블랑(Cote des Blanc), 꼬뜨 드 세잔(Cote de Sezanne), 몽타뉴 드 랭스(Montagne de Reims), 발레 드 라 마른(Vallee de la Marne) 등 5개 구역이다. 발레 드 라 마른을 중심으로 발달한 백악질 토양은 상파뉴 지역 페루아를 대표하는 특징 중 하나다.

지층의 두께만 100m에 이른다. 한낮의 복사열을 품고 있다가 밤이 되면 열을 발산해 일교차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일정한 습도를 머금고 포도나무 뿌리가 아래로 길게 뻗어나가게 해 풍부한 미네랄을 가진 포도가 나게 만들기도 한다.

▶ Charles D'auteuil

1890년 현 오너의 고조부인 Leon Tribaut가 샴페인 유명 지역인 Epernay에서 와인 양조를 시작하였으며, 1930년 증조부 대에 이르러 와인 밭을 구매, 128년의 전통을 이어 오며 페루아 본연의 모습을 담은 샴페인을 생산하고 있다. 1999년 Michel Tribaut에 의하여 샴페인 지역의 페루아 전문가인 소규모 생산자들을 모아 Champagnes de Vignerons를 창설하여 가성비 좋은 샴페인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브랜드가 샤를 도떼일이다. 13명의 와인 생산자로 시작하여 현재는 60명이 넘는 생산자가 참여하는 큰 규모의 회사가 되었다. 수입사 레뱅드매일

수상 와인리스트

Best France Charles D'auteuil Champagne Brut Grand Cru Blanc de Blancs

Gold Charles D'auteuil Champagne Brut



